

朝鮮時代 文獻에 나타난 家庭經濟生活觀*

Home Economic View in Literatures and Documents of Cho-sun Dynasty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 교 崔 培 英

교 수 李 吉 杓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 Bea Young, Choi

Prof : Kil Pyo, Lee

〈 목 차 〉

I. 緒 論

II. 本 論

III. 結 論 및 提 言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ccept its contents as lessons for today and to search for the correct way to lead home economy of the future by way of retranslating home economic view in literatures and documents of Cho-sun Dynasty(1392-1910).

Through studying Cho-sun's literatures and documents:

「Ne-hun」 by the queen So He, 「Kyou-dyoung-yo-ram」 by Lee Whang, 「Kyung-mong-yo-kul」 by Lee Yul Kok, 「Ke-nea-seo」 by Song Si Yul, 「Song-ho-sa-sul」 by Lee IK, 「Sa-so-jol」 by Lee Duk Moo, 「Buk-hak-ee」 by Park Je Ka, 「Mok-min-sim-su」 by Jung Yak Yo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view of income: 1) Cut down on the too much greed of property (property income) 2) Work hard with diligence(earned income).
2. The view of expense: 1) Get food, clothing and housing with frugality 2) Spend money for home rites and reception of guests with manner and truth without extravagance.

* 본 논문은 1994년도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실은 것임.

3. The view of buying and selling: Buy and sell with credit.
4. The view of borrowing and lending: Borrow and lend money honestly.
5. The view of home book-keeping: Keep home book-keeping every day.
6. The view of economic preparation: Save for a rainy day wisely.

I. 緒 論

삶의 터전으로서 가정이 영위하는 매일의 경제생활은 궁극적으로는 가족성원들 모두의 정신적, 물질적 욕구의 충족 및 생활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더 나아가 가정, 기업, 국가가 국민경제의 주체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에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개개 가정의 경제생활은 그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 및 성장 그리고 세계를 향한 국가의 경쟁력에 기반이 되는 책임과 구실을 지닌다고 하겠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가정들은 그러한 책임과 구실을 망각한채 오늘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땀흘려 일해서 번 수고의 결실, 근검과 절약 보다는 일확천금과 과시의 풍조, 사치와 낭비가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는 불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하나들씩 생겨나고 있다고 여기어진다. 이에 본인은 위에서 언급되어진 문제점들이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즉 바른 경제생활관의 상실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조선시대(1392-1910年)의 문헌 중 특히 가정생활 규범과 교훈에 관한 내용을 저술한 문헌들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 속에 나타난 가정경제생활관을 고찰한 후 그 관련 내용을 오늘에 교훈으로 삼아 국민경제의 주체인 가정이 앞으로 영위해야 할 경제생활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고찰대상이 되는 조선시대 문헌들을 저자에 따른年代順으로 열거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表 1>과 같으며, 이러한 8편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朝鮮時代의 家庭經濟生活觀을 고찰함에 있어 가정경제생활의 항목을 분류하기 위해 다음의 <表 2>에서와 같은 학자

들의 내용 분류를 참고로 하였다. 그리하여 선행 분

<表 1> 고찰대상인 조선시대 문헌

문헌명	저자명(연대)
內訓	昭惠王后 韓氏(1437-1504年)
閩中要覽	李 湏(1501-1570年) (傳)
擊蒙要訣	李栗谷(1536-1584年)
戒女書	宋時烈(1607-1689年)
星湖僿說	李 瀾(1681-1763年)
士小節	李德懋(1741-1793年)
北學議	朴齊家(1750-1805年)
牧民心書	丁若鏞(1762-1836年)

류 <表 2> 가운데서 수입과 소비, 경제준비를 선정하였고, 구매는 매매, 가계부기는 가계장기로 변경하였으며, 이외에 대차를 추가하였다. 또한 이 중에서 수입과 소비는 몇개의 소항목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가정경제생활관의 항목들을 다음의 <表 3>과 같이 분류하였다.

II. 本 論

1. 조선시대 문헌의 저술배경과 내용체제

1) 內訓

內訓은 朝鮮朝 제7대 임금인 世祖의 며느리요, 제9대 임금인 成宗의 어머니로 仁粹大妃의 칭호를 받은 昭惠王后 韓氏(1437-1504年)가 成宗 6年(1475)에 지은 책이다. 昭惠王后는 궁중의 妃嬪과 일반 부녀자들의 교육을 위하여 <烈女>, <女教>, <明鑑>, <小學>의 네 책에서 여성교육에 필요한 것을 가려서 이를 세권(三卷) 일곱장(七章)으로 만들고 국문으로 풀이하여 곧 內訓을 완성하였다(김종권, 1987). 그 내

〈表 2〉 가정경제생활의 내용

학자(연도)	가정경제생활의 내용
김영옥(1965)	수입, 지출, 가정경제의 변동, 가정경제의 합리화, 가계부기, 가정경제의 사회화
최경천(1965)	수입, 지출, 가정경제의 변동원인 및 대책, 가정경제의 합리화, 가정경제예산생활과 가계부
박혜경(1973)	수입, 지출, 물품구입, 예산생활, 가계부기, 가정경제의 변동과 그 대책, 소비자이익의 보호책
박혜경(1980)	소득관리, 소비, 가계의 예산, 구매관리, 가계부기, 재산관리, 조세, 소비자보호
서병숙, 임정민 (1988)	가정경제관리태도(가정경제계획, 구매, 소비) 가정경제관리평가(가계부, 소비별 가계운영집점)
서병숙(1990)	수입, 지출, 구매, 경제준비, 예산과 결산
서병숙, 소연경 (1991)	수입, 지출, 가계와 소비자경제(구매, 소비자보호), 가계와 경제관리, 예산과 결산
이기춘(1994)	가계수입, 가계지출, 예산생활과 가계부기, 장기가계계획 및 관리, 가계자산 관리, 가계구매

〈表 3〉 조선시대 가정경제생활관의 항목

가정경제생활관의 항목	
수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을 통해 얻는 수입 — 근로를 통해 얻는 수입
소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에 대한 소비 — 가정의례에 대한 소비 — 집빈에 대한 소비 — 구휼에 대한 소비
매매관	
대차관	
가계장기관	
경제준비관	

용의 체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第1卷—言行章, 孝親章, 婚禮章

第2卷—夫婦章(上篇, 下篇)

第3卷—母儀章, 敦睦章, 廉儉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여성의 미덕을 바탕으로 마음

가짐과 몸가짐을 닦아서 말과 행동을 예의바르게 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혼인한 다음에는 남편을 위하고 돕고, 자녀를 잘 기르고 가르치는 한편, 일가 친척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알뜰한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2) 閨中要覽

閨中要覽은 李滉이 1544년에 저술한 것으로 전해오는 여성교훈서이다. 〈小學〉, 〈時經〉, 〈論語〉, 〈春秋〉 및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조선시대의 다른 여성교훈서와 같이 여성교육의 목표를 夫婦, 孝親, 婦儀, 敦睦, 儉素 등에 두었으며,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서는 婦德, 婦言, 婦容, 婦功 등의 四行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婦德은 은유와 정순과 절개, 婦言은 은화하고 절도있는 말씨, 婦容은 부드러운 얼굴 모습을 가지는 것, 婦功은 여성으로서 하여야 할 가사노동 전반을 충실히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며느리의 도리로서 시어머니와 의로써 마음을 합하여 효도할 것을 강조하는 등 여성으로서 갖추어

야 할 윤리도덕을 비롯하여 언어, 행동거지, 동기와 친척과의 화목, 환자돌보기, 손님대하는 법 등 일상 생활의 범절과 음식의 간을 맞추는 점 등에까지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閩中要覽은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널리 읽힌 교훈서로서, 그 시대의 여성관과 생활모습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이다.

3) 擊蒙要訣

著者 李栗谷(1536-1584年)은 明宗, 宣祖때의 학자이며, 정치가였다. 그는 李滉과 더불어 우리나라 性理學과 교육철학을 절정에 이투어 놓은 한국 정신사의 주맥이며, 교육철학, 경제학 등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화합시킨 대사상가였다(우영희, 1989). 擊蒙要訣은 宣祖 10年(1577)에 栗谷이 해주 석담에서 은거하면서 지은 것으로, 여기서 擊蒙이란 몽매한 아동의 지혜를 계몽하여 주는 일 곧 교육을 말하는 것이며, 要訣이란 요긴한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저서는 그의 교육철학을 근거로 해서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잘 나타낸 책으로 아동의 계몽을 위한 교훈서이며, 초보자는 물론 사립일반에게도 널리 읽혀진 것이다(김성원, 1993). 10장으로 된 擊蒙要訣의 내용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修己—立志章, 革舊習章, 持身章, 讀書章
人倫—事親章, 喪制章, 祭禮章
處事—居家章, 接人章, 處世章

4) 戒女書

戒女書는 朝鮮朝 中期의 학자이며 정치가인 尤庵 宋時烈(1607-1689年)이 權氏 가문에 출가하는 딸을 훈계하기 위하여 지은 책이다. 순수한 국문으로 되어있는 그 내용에는 혼인하는 여성으로서 꼭 갖추어야 할 아름다운 덕행을 비롯하여 가정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올바른 도리가 담겨져 있다(김종권, 1987).

戒女書의 내용의 체제는 20가지의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다.

즉 부모를 섬기는 도리, 남편을 섬기는 도리, 시부모를 섬기는 도리, 형제와 화목하는 도리, 친척과 화목하는 도리, 자식을 가르치는 도리, 제사를 받드는

도리, 손님을 대접하는 도리, 투기하지 말아야 하는 도리, 말씀을 조심하는 도리, 재물을 존절하는 도리, 일을 부지런히 하는 도리, 병환을 모시는 도리, 의복·음식을 하는 도리, 노비를 부리는 도리, 꾸고 받는 도리, 팔고 사는 도리, 비속원하는 도리, 중요한 경계, 옛 사람의 착한 행실에 관한 것이다.

5) 星湖僿說

실학의 大著 星湖僿說의 저자 李瀾(1681-1763年)은 관직에 나가지 않은 학자로서 평생을 농민 곁에서 살았다. 그는 농민들이 일년 내내 부지런히 일을 하여도 糊口조차 하기 어려운데 마음 아파하였고, 조상이 남겨준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신의 생활에 항상 겸허하였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그로 하여금 실학자가 되게 한 것이었다.

星湖僿說은 李瀾이 학문을 닦으면서 그때마다 느낀 것, 들은 것을 적어 모은 것으로 약 40년간에 걸친 기록이었다. 이것을 그의 나이 80세에 이르렀을 때 집안 조카들이 정리하였는데, 僿說이란 細微한 雜著란 뜻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학문적 蘊蓄이 모두 담긴 책이다. 이러한 星湖僿說은 일종의 백과전서적인 저술로서 그 전체 내용을 <千地門>, <萬物門>, <人事門>, <經史門>, <詩文門> 등 5개 門으로 나누어 3,007편의 항목을 수록하였으며, 천문, 지리, 역사, 관제, 군사, 경제, 풍속, 문학, 종교 등 그 범위는 각 분야에 미치고 있다(강만길 외, 1983). 그 내용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天地門—천문, 지리 등에 관한 223항목
萬物門—복식, 음식, 농상, 가축, 화초, 화폐, 도량 등에 관한 368항목
人事門—정치, 제도, 사회, 경제, 학문, 사상, 사건 등에 관한 990항목
經史門—역사의 해석 및 역사서에 대한 논설 등에 관한 1,048항목
詩文門—시, 문장에 관한 378항목

6) 士小節

士小節은 朝鮮 英祖 51年(1775)에 雅亭 李德懋(1741-1793年)가 남성과 여성과 아동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닦는 수신서로 만든 책으로 올바른 행실을 통해 보다 좋은 사회생활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 李德懋는 당시 北學派에 속한 실학자였으므로 그는 실제의 사실을 통하여 올바른 진리를 찾아낸다는 이른바 實事求是의 이념 아래 모든 사회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고 기록하였으므로 士小節은 무엇보다도 실생활과 결부된 귀중한 책이라고 하겠다(김종권, 1993). 그 내용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士典-性行, 言語, 服食, 動止, 謹慎, 教習, 人倫, 交接, 御下, 事物

婦儀-性行, 言語, 服食, 動止, 教育, 人倫, 祭祀, 事物

童規-動止, 教習, 敬長, 事物

7) 北學議

우리의 근근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근대적이었던 실학자 朴齊家(1750-1805年)는 승지 朴坪의 서자로 삶을 시작했다. 당시에 있어서 서자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봉건적 질곡 아래 불우한 일생을 보내야만 하는 숙명에 놓여 있었다. 팔팔한 성미에 넘치는 재간을 가진 그에게 서얼이란 한많은 신세는 그 집안의 가난과 아울러 그를 고뇌 속에서 단련시켜 바르게 사회를 볼 수 있는 精神開眼에 박차를 가했을 것이다. 그는 일찍부터 燕行을 열망하였으며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실지로 관찰비교하고 싶어하였는데, 그 기회는 그가 29세 되던 正祖 2年(1778)에 이루어졌다. 燕行은 전후 3개월에 걸쳤는데 연경에서는 30일간 머물렀으며, 돌아와 3개월만인 그 해 9월에 탈고된 것이 北學議였다(강만길 외, 1983). 그 내용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內篇-수레, 배, 성, 벽돌, 기와, 자기, 대자리, 창호, 소, 말, 나귀, 은, 돈, 쇠, 재목(材木), 여복(女服), 저보, 문방구 등의 30項目

外篇-밭, 거름, 뽕나무와 과실, 농잠총론(農蠶總

論), 과거론, 관론(官論), 녹제(祿制), 재부론(財賦論) 등의 17項目

이중 內篇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시설에 대한 개혁론을 제시하여 현실의 문화와 경제생활 전반을 개선하려 하였고, 外篇에서는 상공업과 농경생활에 관한 기초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무조건적인 절검 보다는 소비를 권장하여 생산을 자극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민중의 수요억제, 절검이 경제안정에 필요하다는 통론을 물리치고 생산확충에 따른 충분한 공급이 유통질서를 원활하게 한다는 경제관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확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진문물의 습득과 보급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經國濟民의 名論이며 동시에 당시의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의 의식주에 관한 솔직하고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8) 牧民心書

牧民心書는 丁若鏞이 57세 되던 해에 저술한 책으로 그가 신유사옥으로 전라도 강진에서 19년간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중 解配되던 해인 순조 18年(1818)에 완성한 것이다. 이는 저자가 학문적으로 가장 원숙해가던 때에 이루어진 저술로 민생과 관련된 그의 많은 저서 중 대표적인 작품이며, 부패의 극에 달한 조선후기 지방의 사회상태와 정치의 실체를 민생문제 및 수령의 본무와 결부시켜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명저이다.

그 내용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 第一篇-부임(赴任) 第七篇-예전(禮典)
- 第二篇-율기(律己) 第八篇-병전(兵典)
- 第三篇-봉공(奉公) 第九篇-형전(刑典)
- 第四篇-애민(愛民) 第十篇-공전(工典)
- 第五篇-이전(吏典) 第十一篇-진황(賑荒)
- 第六篇-호전(戶典) 第十二篇-해관(解官)

以上에서 밝혀진 문헌들의 저술배경과 내용체제를 살펴보면 조선 전·중기 문헌의 저자인 昭惠王后, 李滉, 李栗谷, 宋時烈 등은 대개 兩班家의 경제생활에 연관된 저술을 펼친 반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

난을 겪은 뒤인 조선후기 문헌의 저자 李瀼, 李德懋, 朴齊家, 丁若鏞 등은 실생활에서의 사회상 및 민생 문제를 연구한 실학자들로 앞선 조선 전·중기 문헌에 비해 일반서민과도 관련된 가정경제생활관을 그들의 저서에서 논하였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2.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가정경제생활관

1) 수입관

수입은 크게 재산수입(property income)과 근로수입(earned income)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여기서 재산수입을 재산으로 부터 생기는 수입이라고 한다면, 근로수입은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라 하겠다.

(1) 재산을 통해 얻는 수입

먼저 재산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義와 德의 도리를 지녀서 과욕을 금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 재물은 쌓아 두되 풀어 나누어 줄줄 알며, 편안한 데를 편안하게는 여기지만 의리의 판단으로 능히 편안을 버리고 괴로움으로 옮기느니라. 재물 앞에 다다라 구차히 얻으려 들지 말며, 어려움에 닥쳐서 구차히 면하려 들지 말며, 남과 다툰 때 이기려고 기를 쓰지 말며, 나눌 때 많이 가지려 들지 말며...」(昭惠王后, 內訓, 言行章)

「대체로 사양하거나 받고 갖거나 할 적에는 반드시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자세히 생각해서 의로우면 갖고 의롭지 않으면 갖지 않으며, 이를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李栗谷, 擊蒙要訣, 居家章)

「... 재물만 있고 덕이 없으면 차라리 재물이 없는 것만 못한 것이다...」(李瀼, 星湖僿說, 人事門, 勤儉)

(2) 근로를 통해 얻는 수입

한편 근로를 통해 얻는 수입에 있어서는 근면성실한 근로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가족성원들이 각자의 역량에 맞는 책임을 다할 것을 이르고 있다.

「곡식은 남자로 부터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므로 남자가 곡식 아까운 줄을 가장 잘 알며, 부인은 가히 이에 미치지 못한다. 포백(布帛)은 부인의 노력에

서 나오는 것이므로 부인이 아까운 줄을 가장 잘 알고 남자는 가히 이에 미치지 못한다. <書經>에 “먼저 곡식농사하는 일이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하였는데 반드시 농민이 되어 본 뒤에 알 수 있으며, <時經>에는 “옷을 입음에 싫증남이 없다”고 하였는데 반드시 자신이 직접 길쌈을 해본 다음이라야 그럴 수 있는 것이다. ... 자신이 부지런히 노력하게 되면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님을 더욱 깨닫게 된다」(李瀼, 星湖僿說, 人事門)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자력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을 유정도 선배에게서 보았고, ... 유정모는 책을 읽고 가정을 다스릴 때는 화려함을 버리고 진실함을 근본으로 삼았는데, 지각없고 어리석은 사람과 같았으나 이웃 사람들은 그 인품에 감복하였다. 그는 밭을 짜고, 새끼를 꼬고, 가지 한 두둑과 포도 나무를 심어서 여기서 나는 것을 팔아 먹을 것을 장만하였고, 그의 열 식구도 군세고 약한 데 따라서 다 맡아 하는 일이 있어서 각기 생활을 도왔고」(李德懋, 士小節, 士典, 性行).

2) 소비관

(1) 의식주에 대한 소비

의식주 생활을 위한 소비에 있어서 검소하여 사치를 금할 것과 바른 소비습관의 형성의 중요성을 권고하는 경제생활관을 엿볼 수 있다.

「... 남의 패물을 흠모하여 따르려 하지 말며, 물건을 모으는 것은 조물주의 꺼리는 것이고, 사치는 재앙을 부르는 바다」(李滉(傳), 閩中要覽)

「의복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 추위를 막을만하면 되고 음식은 맛만을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 굶주림을 면할 만하면 되고, 거처하는 곳은 편안하고 태평함을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 병이 나지 않을 만하면 된다」(李栗谷, 擊蒙要訣, 持身章)

「의복과 음식을 너무 사치스럽게 하지 말고」(宋時烈, 戒女書, 재물 존절이 쓰는 도리라)

「아동의 성품은 깨끗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버릇이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그러한 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이는 사치하는 버릇에 들어가기 쉬우니 부모는 이를 억제하여 검소하게 바로잡아서 거칠고 소박한 의복을 입게 할 것이다」(李德懋, 士小節, 童規, 動止)

「의복과 음식은 검소한 것으로써 법식(法式)을 삼을 것이다. 조금만 법식을 넘어도 그 썸썸이에 절도가 없어져버린다」(丁若鏞, 牧民心書, 律己, 節用)

(2) 가정의례에 대한 소비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혼례, 상례, 제례 시의 소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예의와 정성을 바탕으로 하여 형편에 맞는 가정의례를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체로 제사는 사랑과 공경의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주를 삼을 뿐이다」(李栗谷, 擊蒙要訣, 祭禮章)

「제사는 정성을 다하여 정결하게 하며 조심하는 것이 으뜸이니 …」(宋時烈, 戒女書, 祭사 받드는 도리라)

「혼인(婚姻)과 상사(喪事)에는 집의 형편의 있고 없음을 따르며」(李瀾, 星湖僿說, 人事門).

「제사의 사치가 분수를 넘는 사람은 남에게 자랑하려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다」(李德懋, 士小節, 士典, 事物).

(3) 접빈에 대한 소비

가정에서의 손님접대는 남성의 사회활동과 여성의 정성스러움의 표시이기에 과거에나 현재에 있어서나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치를 하기 보다는 올바른 예의를 갖추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요즘 사대부의 집안에서는 … 음식이 가지 수가 많지 않거나, 그릇이 상에 가득 차지 않으면 감히 손님이나 벗을 모이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여러 날을 장만하여 모은 뒤에야 감히 초청하는 글을 보낸다. 혹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투어 이를 비난하여 비루하고 인색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세속을 따라 사치하고 화려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드무니 슬프다」(昭惠王后, 內訓, 廉儉章)

「요즘 인심이 부유하고 귀한 손님이 오면 조심하여 잘 대접하고, 가난하고 천한 손님이 오면 허술하게 대접하니 이는 덕성스럽지 못한 행실이다. 손님

은 늙은이와 젊은이는 분간하여 대접할 것이지만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부디 분별하지 말아라」(宋時烈, 戒女書, 손 대접하는 도리라)

「주인은 고기를 먹으면서 손님에게 푸성귀를 대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李德懋, 士小節, 士典, 服食)

(4) 구휼에 대한 소비

구휼은 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전이나 물건을 주어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구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평소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통해 이것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주리며 추워하는 이를 내 어찌 능히 가엽게 여기지 않으리오」(昭惠王后, 內訓, 敦睦章)

「검소한 사람은 스스로 절약을 잘하는 까닭으로 항상 남는 것이 있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지마는 사치하는 사람은 스스로 후한 생활을 좋아하는 까닭으로 항상 남에게 인색하다」(李德懋, 士小節, 士典, 性行)

「혹시 비참한 일이 눈에 띄어 측은한 마음을 견딜 수 없거든 마땅히 즉시 구휼을 베풀고」(丁若鏞, 牧民心書, 愛民, 哀喪)

3) 매매관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매매를 행할 때 바른 마음과 집과 몸가짐의 도덕 즉 신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살때는 적게 주고 팔때는 많이 받고자 하니, 남에게 속지는 않으려고 하거니와 너무 이롭고자 하지는 말라. 물건을 살때는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팔면 얼마를 받겠다고 헤아려 보고, 팔때는 생각하기를 내가 사면 얼마를 주겠다고 그 값을 대강 짐작하여 사고 팔면 자연히 마땅한 값대로 될 것이다」(宋時烈, 戒女書, 팔고 사는 도리라)

「남과 물건을 사고 팔때는 억지로 낮추거나 높이거나 가혹하게 값을 논하지 말 것이고, 또한 남이 미천하다고 해서 억눌러 빼앗지 말 것이다. 또한 이미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으면 해약을 조르지 말 것이다」(李德懋, 士小節, 士典, 事物)

4) 대차관

가급적 꾸어쓰지 않는 절제의 생활을 하되, 그래도 만일 대차를 행해야 할 경우에는 의리로서 상부상조해야 한다는 대차관이 나타나 있다.

「어지간해서 꾸어 쓰지 않아도 견딜만 하거든 꾸어 쓰지 말라. 부질없이 꾸어쓰기와 빚내기를 즐기다가는 값은 때면 공것 같고, 집이 자연히 가난해질 것이다」(宋時烈, 戒女書, 꾸고 받는 도리라)

「내가 우환이 있거나 곤궁할 때 힘을 다하고 재물을 내어 여러모로 도와 준 사람은 마땅히 기록하여 잘 간직해 두고서 죽을 때까지 그 의리를 저버리지 말고 값을 것을 생각할 것이다」(李德懋, 士小節, 士典, 交接)

5) 가계장기관

가계장기관 가계에서의 수입, 소비, 매매, 대차의 내용을 계산, 정리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여 두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가정에서 작은 일용품으로부터 돈이나 곡식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기록을 통해 금전과 물건의 보존과 사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경제생활관을 찾아볼 수 있다.

「돈이나 곡식을 내고 들일 때는 반드시 책에 기록하여 가장에게 보여서 빠진 것이 없게 할 것이다」(李德懋, 士小節, 婦儀, 事物)

「여자들이 거처하는 안방 안에 간직된 그릇 같은 일용품은 크고 작고 성하고 낡은 것을 가릴 것 없이 반드시 있는 곳을 기록하여 둘 것이지 혹시 합부로 돌려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李德懋, 士小節, 婦儀, 事物)

6) 경제준비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해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그 중요성을 깊이 강조하고 있다.

「대체로 집에 있어서는 ... 낭비를 존절하게 줄이

고 사치와 화사를 금지하며 항상 좀 남음을 두어서 이로써 뜻밖의 쓸일에 대비할 것이다」(李栗谷, 擊蒙要訣, 居家章)

「항상 나머지를 두어 질병의 약값을 마련하거나 상사(喪事)의 소용을 마련하거나 공사채로 인한 괴로움이 없게 하고, 쓸 데가 없거든 잘 늘여서 자손을 위하여 전답을 장만하는 것이 또 옳을 것이다」(宋時烈, 戒女書, 재물 존절이 쓰는 도리라)

「미리 준비하면 성공하고, 미리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하지 않았는가, 무릇 천하 일에 곤란을 당하는 것은 모두 막판에 와서야 바야흐로 깨닫는데에 연유한다. 진실로 풍년에 모아두지 않으면 흉년을 어찌 넘길 수 있게 되겠는가」(李瀾, 星湖僿說, 荒政豫備)

以上에서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가정경제생활관을 고찰한 결과, 가정경제생활관의 6가지 항목과 그에 관련된 문헌들을 제시하면 다음의 <表 4>와 같다.

<表 4>를 통해 조선시대의 가정경제생활관에서 조선 전·후기에 나타나는 다소의 변화 양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조선전기의 사회경제적 배경에는 실생활면과 유리된 空理空論으로 사물을 대하고 평가하는 기풍이 만연되어 실리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천시되었고, 한편으론 국가정책으로서의 통제와 유교적 검약생활로 하여 사치와 낭비가 방지되었다(이길표, 1973). 이에 반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난을 겪은 뒤인 조선후기에는 농민의 요구와 經世致用, 利用厚生, 實事求是를 향한 실학의 사회 모순에 대한 극복과 개혁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실질적, 실천적, 실용적인 생활로의 변동이 촉진되었다(양창삼, 1993). 이와 더불어 17세기초에 들어 서서히 발생한 실학의 대두와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재물을 단순히 절약하였던 단계에서 한 단계 넘어서 가계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경제적 사고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이영미, 1991).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염두해서 宋時烈의 「戒女書」를 기점으로 하여 조선전기의 문헌으로 昭惠王

〈表 4〉 조선시대 가정경제생활관의 항목과 관련 문헌

가정경제생활관의 항목		관 련 문 헌
수 입 관	재산을 통해 얻는 수입	內訓, 擊蒙要訣, 星湖僿說, 士小節
	근로를 통해 얻는 수입	星湖僿說, 士小節, 北學議
소 비 관	의식주에 대한 소비	內訓, 閩中要覽, 擊蒙要訣, 戒女書, 士小節, 北學議, 牧民心書
	가정의례에 대한 소비	內訓, 擊蒙要訣, 戒女書, 星湖士說, 士小節
	접빈에 대한 소비	內訓, 戒女書, 士小節
	구휼에 대한 소비	內訓, 戒女書, 士小節, 牧民心書
매 매 관		戒女書, 士小節
대 차 관		戒女書, 士小節
가계장기관		士小節
경제준비관		擊蒙要訣, 戒女書, 星湖僿說

后 韓氏의 「內訓」, 李滉(傳)의 「閩中要覽」, 李栗谷의 「擊蒙要訣」을, 조선후기 문헌으로 李滉의 「星湖僿說」, 李德懋의 「士小節」, 朴齊家の 「北學議」, 丁若鏞의 「牧民心書」를 구분지어볼 때, 宋時烈的 「戒女書」 이후의 조선후기 문헌들에서는 가정경제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경제적 사고 방법이 등장한 것은 물론 그 양상이 실천적, 실리적, 실용적인 면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表 4〉에서 보면 조선시대 가정경제생활관의 항목들 중 「戒女書」 이후의 문헌들만을 관련 문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근로수입관, 매매관, 대차관, 가계장기관 등의 항목들이었다. 여기서 근로의 댓가로 일정기간에 가내로 벌어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근로수입이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하는 매매, 재물을 꾸어 주고 꾸어 받는 것을 의미하는 대차 그리고 가계에서의 수입, 소비, 매매, 대차의 내용을 계산, 정리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는 가계장기 등은 바로 실천성, 실리성, 실용성의 경제생활관의 예로서 사료 되는 바이다.

Ⅲ. 結論 및 提言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가정경제생활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경제생활에 대한 경각을 일깨우는 동시에 앞으로 가정이 영위해야 할 경제생활의 방향에 있어 중요한 교훈이 되어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남겨져야 할 가치로운 것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고찰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가정이 영위해야 할 경제생활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義와 德의 도리를 일깨워 과욕을 금하고, 근면성실하게 근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개개 가정의 가족성원들은 각자의 역량에 맞는 책임과 구실의 실행을 통해 가정경제생활의 안정과 성장의 기반에 그 몫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가정경제생활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현시점에서 반성해야 할 점들을 생각치 않으면 안된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으로 또다른 한편에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만을 원하면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조선시대의 가정경제

생활관은 경각을 일깨워준다.

둘째, 禮와 誠의 도리를 바탕으로 사치함이 없이 가정의 형편에 맞는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치와 낭비의 의식주 생활, 남보다 호화로운 예식과 접대를 치루어야 체면이 선다는 생각을 버리고, 검소와 절약의 생활을 통해 그로 부터 타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의 像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신용으로서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와 의리에 입각한 상부상조의 대치를 행해야 할 것이다. 신용과 상부상조야말로 가정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사회 전체가 공정한 상거래의 경제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네째, 금전과 물건의 보존 및 사용을 명확히 하는 가계장기가 생활화되어야 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강만길 외(1983), 「한국의 실학사상」. 서울:삼성출판사.
- 2) 박제가(1991), 「북학의」. 서울:올유문화사.
- 3)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교수실 편(1989), 「한국사」.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4) 소혜왕후 한씨(1988), 「내훈」. 정양완 역, 서울:학원사.
- 5) _____(1987), 「내훈」. 김종권 역, 서울:명문당.
- 6) 송시열(1987), 「계녀서」. 김종권 역, 서울:명문당.
- 7) 양창삼(1993), 「한국의 경영사상」. 서울:양영각.
- 8) 우영희(1989), “조선시대 교훈서를 통해 본 자녀양육”,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 9) 이길표(1973), “이조시대 경제관념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집」 제 6호, 성신여자 사범대학.
- 10) 이덕무(1993), 「사소절」. 김종권 역, 서울:명문당.
- 11) 이영미(1991), “규범류를 통해 본 조선조 가정의 경제생활에 관한 일고찰”, 「소비생활연구」 제 7호, 한국소비자보호원.
- 12) 이울곡(1993), 「격몽요결」. 김성원 역, 서울:명문당.
- 13) 이익(1976), 「성호사설」. 서울:민족문화추진회.
- 14) 이황(전), 「규동요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
- 15) 정약용(1993), 「목민심서」. 다산연구회 역, 서울:창작과 비평사.
- 16) 지영숙(1987), “정약용의 가정교육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17) 홍달아기(1993), “율곡의 가정교육관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18) 황준연(1988), “율곡의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